

달의 週期에 따른 飲酒와 人性과의 聯關性에 關한 調查研究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Drinking and MMPI in lunar cycle.

李錫駿* 柳泳秀* 柳熙英**

I. 緒 論

달과 人間의 感情障碍와의 關係에 있어 人體도 달의 表面처럼 약 80%가 水分으로 되어있어 달중력의 영향을 받아 體內的 水分 變化등의 週期的인 變化가 일어나 感情의 障碍까지도 招來할 것이라 하였다²⁵⁾.

또한 Kelly²⁶⁾도 精神疾患과 달의 關聯性을 發表하는등 달이 人間이나 動物의 行動과 精神에 어떠한 影響을 줄것이라는 생각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飲酒에 대해서는 “酒者 五穀之津液 飲之皆亂易人性 是其毒也”라 하였으며²⁰⁾ 醉飲하면 神志가 昏亂되고 사람의 性品이 變異된다 하였다²¹⁾. 즉 飲酒는 肯定的인 面보다 否定的인 面이 더욱 浮刻되어 社會精神醫學的 關心의 對象이 되고있다. 더우기 飲酒는 個人에 따라, 文化圈에 따라 다양한 意味를 內包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 社會가 急激한 都市化 및 分業化 등으로 生活樣式의 變化는 술마시는 態度를 西歐化 시키려

는 傾向이 있고, 젊은 年齡층 특히 大學生들의 飲酒가 增加하고 있어 飲酒에 대한 各種障碍가 增加趨勢에 있다^{1,17)}.

飲酒에 關한 研究는 조(10)는 韓國人의 飲酒 樣態를, 김(1)은 일부 大學生集團의 알콜 常用障碍에 對하여, 신(5)은 Alcoholism 患者에 對한 臨床的 考察을, 유(6)는 Alcoholism 患者의 不安과 憂鬱性向에 關하여 報告하였다. 박(3), 조(9), 피(11)등은 다면적 임상검사(以下 MMPI라 稱)를 利用하여 Alcoholism 患者의 人格 特性을 報告하였다.

人性檢査를 韓醫學에 應用하기는 金(2)은 腰痛에 關하여, 서(4)는 커피와의 聯關性을, 윤(7)은 手指末端體溫과의 相關性을, 橋瓜(24)등은 慢性痛症患者에 대한 加味逍遙散의 效果를, 邢(12)은 虛證이 簡易精神 診斷檢査에 미치는 影響을 報告하였다.

本 研究에서는 飲酒가 人性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며, 특히 달의 週期變化에 따라 飲酒者의 感情障碍를 살펴보고자, 陰曆 보

*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름날(滿月)과 그믐날(新月)을 擇하여 飲酒者와 非飲酒者에게 MMPI를 施行하였던바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었기에 報告한 바이다.

II. 調査對象과 研究方法

1. 調査對象

調査對象은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在學中인 本3學生 男女를 對象으로 하였다.

(Table 1).

說問紙를 利用하여 應答者 自身の 主觀的 判斷에 의해 술을 “마신다”, “안마신다”로 區分하였다.

Table 1. 調査對象者の 分布

	보름날 (N=93)	그믐날 (N=101)	總計
飲酒者	71	79	150
非飲酒者	22	22	44

N: Number of subjects

2. 研究方法

1) 이들 集團에 韓國 가이드스 (1992년 1월 5일 印刷)의 MMPI를 사용하여 1992년 4월 2일(陰曆 2월 30일)과 1992년 6월 15일(陰曆 5월 15일)에 反復 測定하였다.

2) 酒精攝取에 따른 生體變化를 MMPI를 통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飲酒群과 非飲酒群의 全體反應點數를 比較하였고, 보름날과 그믐날의 각각의 MMPI 結果를 比較分析하였다.

3) 飲酒群과 非飲酒群의 神經症, 精神症傾向을 알아보기 위하여 形態分析도 實施 하였다.

4) 飲酒群의 달의 週期에 따른 人性變化를 살펴보기 위하여 보름날과 그믐날의 각

각의 MMPI 結果를 比較分析하였다.

5) 非飲酒群의 달의 週期에 따른 人性變化를 살펴보기 위하여 보름달과 그믐달의 각각의 MMPI 結果를 比較分析하였다.

6) 統計處理는 SAS 프로그램을 利用하여 各集團의 平均과 標準偏差를 算出했으며 student's t test에 의한 檢證을 하였다. P-value가 0.05以下일때 有意性を 認定하였다.

III. 調査結果

1) 飲酒群과 非飲酒群의 比較

飲酒群과 非飲酒群 모두 각 尺度別 T點數의 平均값은 40이상 60이하로 正常範圍 안에 있었다.

飲酒群이 尺度 L, K, Si를 제외한 모든 尺度에서 非飲酒群보다 높은 T點數를 나타냈다. 統計的으로는 尺度 L은 飲酒群이 非飲酒群보다 有意하게 낮았고, 尺度 F, Pd, Pa, Sc, Ma에서는 飲酒群이 非飲酒群보다 有意하게 높았다(Table 2, Fig 1).

Table 2. 飲酒群과 非飲酒群의 MMPI結果

尺度	飲酒者 (N=150)	非飲酒者 (N=44)	t
	Mean(S.D)	Mean(S.D)	
L	48.85(9.21)	53.98(12.03)	2.69*
F	48.19(6.84)	44.66(7.20)	2.98**
K	52.91(9.84)	56.54(12.62)	1.76
Hs	55.02(10.49)	53.72(9.62)	0.73
D	51.93(11.20)	50.59(10.87)	0.69
Hy	55.16(11.06)	53.04(9.80)	1.14
Pd	50.60(10.34)	44.57(8.58)	3.52***
Mf	52.43(11.10)	51.18(10.24)	0.67
Pa	51.90(8.87)	49.50(6.14)	2.04*
Pt	53.73(10.34)	50.81(10.52)	1.64
Sc	53.21(9.56)	47.91(9.41)	3.25**
Ma	50.97(10.79)	45.39(10.46)	3.04**
Si	50.02(11.78)	52.68(9.40)	1.37

N: number of subjects

S.D.: standard deviation

*: P<0.05 ** : P<0.01 ***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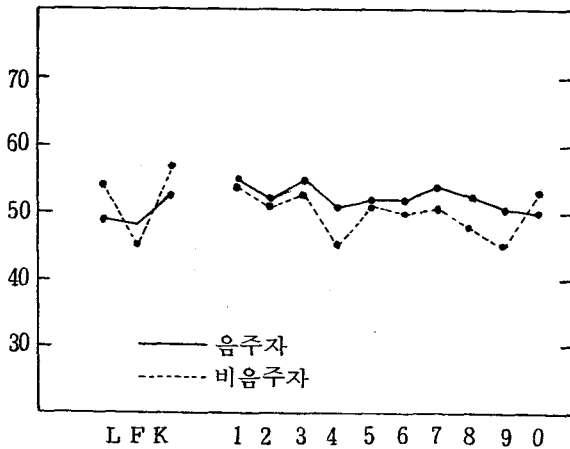


Fig 1. 飲酒者와 非飲酒者의 MMPI Prof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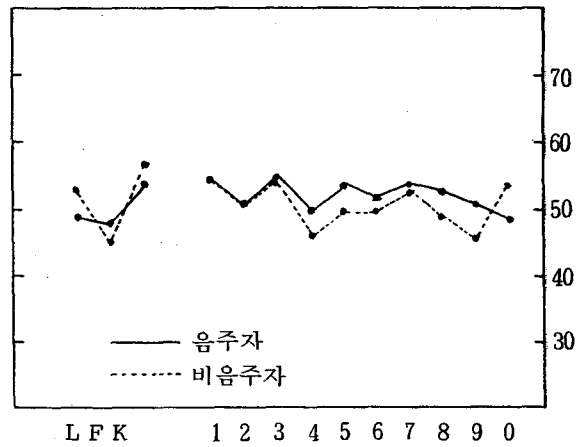


Fig 2. 보름날에 飲酒群과 非飲酒群의 MMPI Profile

2) 보름날에 飲酒群과 非飲酒群의 比較

飲酒群이 尺度 L, K, Si를 除外한 모든 尺度에서 非飲酒群보다 높은 T點數를 보였다.

統計적으로는 尺度 Ma에서 有意한 差異를 보였다 (Table 3, Fig 2).

Table 3. 보름날에 飲酒群과 非飲酒群의 MMPI 結果

尺度	飲酒者	非飲酒者	t
	(N=71) Mean(S.D)	(N=22) Mean(S.D)	
L	49.28(9.78)	53.36(12.60)	1.59
F	47.62(7.02)	45.45(8.97)	1.18
K	53.99(11.13)	57.14(14.16)	1.08
Hs	55.31(10.63)	54.68(9.07)	0.25
D	51.48(10.76)	51.27(11.89)	0.07
Hy	55.49(11.52)	54.59(10.06)	0.33
Pd	49.73(10.99)	45.95(9.20)	1.46
Mf	53.93(11.39)	50.36(10.47)	1.30
Pa	51.86(8.88)	49.72(6.90)	1.03
Pt	54.01(9.48)	53.09(11.14)	0.38
Sc	53.15(9.66)	48.77(10.83)	1.80
Ma	51.39(11.14)	45.50(11.12)	2.17*
Si	48.80(11.67)	53.59(9.80)	1.74

N : number of subjects
S.D : standard deviation
* : P < 0.05

3) 그믐날에 飲酒群과 非飲酒群의 比較

飲酒群이 尺度 L, K, Mf, Si를 除外한 모든 尺度에서 非飲酒群보다 높은 T點數를 보였다.

統計적으로는 尺度 L은 飲酒群이 非飲酒群보다 有意하게 낮았고, 尺度 F, Pd, Sc, Ma에서는 飲酒群이 非飲酒群보다 有意하게 높았다 (Table 4, Fig 3).

Table 4. 그믐날에 飲酒群과 非飲酒群의 MMPI 結果

尺度	飲酒者	非飲酒者	t
	(N=79) Mean(S.D)	(N=22) Mean(S.D)	
L	48.47(8.71)	54.59(11.69)	2.69**
F	48.71(6.67)	43.86(4.94)	3.17
K	51.95(8.48)	55.95(11.18)	1.82
Hs	54.76(10.42)	52.77(10.25)	0.79
D	52.33(11.65)	49.91(9.99)	0.89
Hy	54.87(10.69)	51.50(9.50)	1.34
Pd	51.37(9.73)	43.18(7.87)	3.62***
Mf	51.09(10.74)	52.00(10.19)	0.36
Pa	51.94(8.91)	49.27(5.42)	1.74
Pt	53.48(11.12)	48.55(9.60)	1.89
Sc	53.27(9.52)	47.05(7.92)	2.80**
Ma	50.59(10.51)	45.27(10.01)	2.12*
Si	51.11(11.85)	51.77(9.12)	0.24

N : number of subjects
S.D : standard deviation

* : P < 0.05 ** : P < 0.01 *** : P <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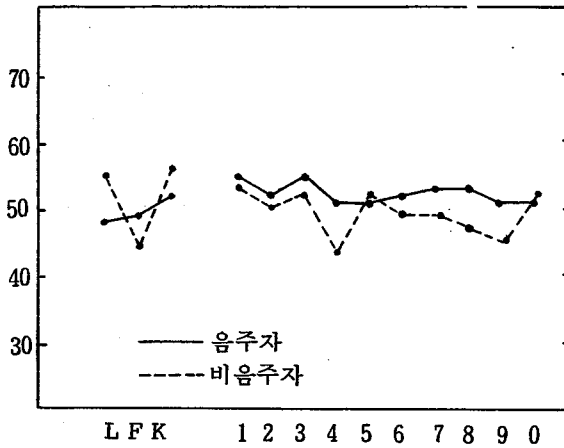


Fig 3. 그믐날의 飲酒群과 非飲酒群의 MMPI Prof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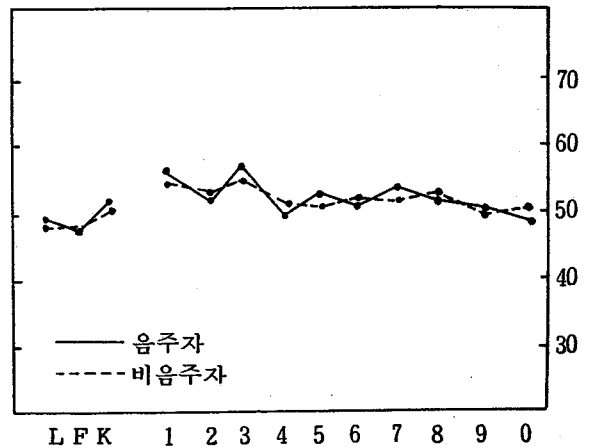


Fig 4. 飲酒群의 달의 週期變化에 따른 MMPI Profile

4) 飲酒群의 달의 週期變化에 따른 結果

Table 5. 飲酒群의 달의 週期變化에 따른 MMPI 結果

尺度	보름	그믐
	(N=71)	(N=79)
	Mean(S.D)	Mean(S.D)
L	49.28(9.78)	48.47(8.71)
F	47.62(7.03)	48.71(6.67)
K	53.99(11.13)	51.95(8.48)
Hs	55.31(10.63)	54.76(10.42)
D	51.48(11.52)	54.87(10.79)
Hy	55.48(11.52)	54.87(10.69)
Pd	49.73(10.99)	51.37(9.73)
Mf	53.93(11.39)	51.09(10.74)
Pa	51.86(8.89)	51.94(8.91)
Pt	54.01(9.48)	53.48(11.12)
Sc	53.15(9.66)	53.27(9.52)
Ma	51.39(11.15)	50.59(10.51)
Si	48.48(11.67)	51.11(11.85)

N : number of subjects
S.D : Standard deviation

5) 非飲酒群의 달의 週期變化에 따른 結果

Table 6. 非飲酒群의 달의 週期變化에 따른 MMPI 結果

尺度	보름	그믐
	(N=22)	(N=22)
	Mean(S.D)	Mean(S.D)
L	53.36(12.61)	54.59(11.69)
F	45.45(8.97)	43.86(4.94)
K	57.14(14.16)	55.95(11.18)
Hs	54.68(9.07)	52.77(10.25)
D	51.27(11.89)	49.91(9.99)
Hy	54.59(10.06)	51.50(9.50)
Pd	45.95(9.20)	43.18(7.87)
Mf	50.36(10.47)	52.00(10.19)
Pa	53.09(11.14)	48.55(9.60)
Sc	48.77(10.83)	47.05(7.92)
Ma	45.50(11.12)	45.27(10.01)
Si	53.59(9.81)	51.77(9.12)

N : number of subjects
S.D : standard dev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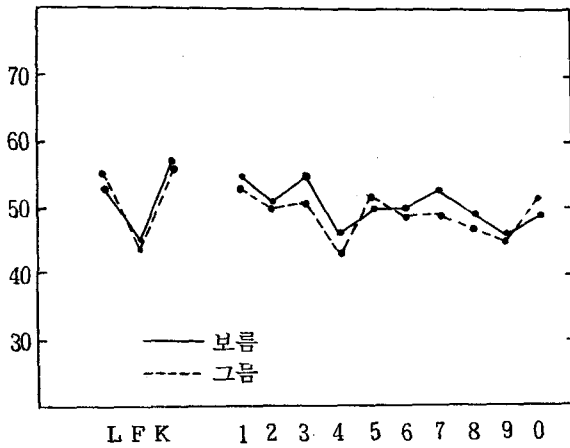


Fig 5. 非飲酒群의 달의 週期變化에 따른 MMPI profile

6) 飲酒群과 非飲酒群의 形態分析

飲酒群이 非飲酒群보다 神經症, 精神症傾向이 높았다 (Table 5).

Table 5. 飲酒群과 非飲酒群의 形態分析

	飲酒者 (N=150)	非飲酒 (N=44)
神經症 Pattern (Hs, D, Hy)	18 (12%)	4 (9%)
精神症 Pattern (Pa, Pt, Sc, Ma)	9 (6%)	1 (2%)

N : number of subjects

IV. 考 察

“酒는 五穀의 精이며 熟穀의 液으로서 氣味는 陽에 屬한다. 酒에는 大熱大毒이 있어서 飲酒하면 神志가 昏亂되고 사람의 性品이 變異될 정도로 毒氣가 있다.”^{20,21,23)}

고 하였고, “此物 有 興奮作用, 故 平人 飲之 能使 精神 煥發”²²⁾ 이라하여 酒精의 攝取에 따른 生體의 變化, 특히 精神障礙를 記錄하고 있다. 酒精은 消化의 過程을 거치지 않고 腸管을 통하여 직접 血液중에 吸收되는 物質이다. 酒精은 높은 열량가치 (7.1 cal/gm)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량을 攝取하게 되면 다른 飲食에 대한 慾求가 相殺된다. 이러한 結果로 食慾이 減少된다. 과량사용되면 胃, 脾腸, 腸에 損傷을 주어 營養分의 消化吸收가 妨害되어 營養不良狀態가 된다^{16,17)}. 따라서 “酒入於胃, 則絡脈滿而 經脈虛 脾主爲胃 胃不和則 精氣竭”^{20,21,23)} 라 하여 酒精의 過多한 攝取는 脾胃를 損傷시킨다. 生命活動을 維持하기 위하여 必要한 營養物質을 生産하고 供給하는 作用은 脾가 主管한다¹⁹⁾. 刑¹²⁾은 精神疾患의 類型中 脾胃로 오는 境遇는 不眠 驚悸, 怔忡, 癲狂 등의 症狀이 나타난다하여 精神疾患이 脾胃機能과 關係가 있다고 하였다. 柳¹⁴⁾는 “酒精을 過飲하면 肺胃에 積熱이 되어 上蒸하여 風寒에 傷하기 쉬우며, 瘀血이 盛하게 되고 酒氣가 熏蒸한다”¹⁴⁾ 고 하여 酒精에 대한 瘀血의 病因을 提示하였다. 또한 宋⁸⁾은 飲酒로 인한 血溢(出血)의 病症을 밝혔으니 이는 酒精이 血病을 誘發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한편 血病으로 인한 精神疾患發生은 “血脈和則 精神乃居, 故神者 水穀之精氣也”, “血氣者人之神 不可不謹養”²³⁾ 이라 하여 血은 精神活動의 物質的 基礎로 血의 盛衰消長은 精神이 旺盛, 意志의 靈敏과 밀접한 關係가 있다.²¹⁾ 酒精은 血을 變化시키며 血이 變化하게 되면 精神과 意識에도 變化가 따른다.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酒精을 攝

取하면 血瘀 하게되며, 또한 脾胃機能을 低下시켜 血의 生成源이 不足하게되어 血虛가 되고 精神活動에까지 影響을 미친다.

조¹⁰⁾는 正常人에서의 飲酒에 관한 一般的인 樣態를 調査 報告하였다. 飲酒者는 調査對象者의 71%였는데 本 研究에서는 飲酒率이 70%로 같은 結果를 얻었다. 또 大學生群에서는 情緒的인 要因으로 술을 마신다고 하였다. 김¹⁾은 일부 大學生集團에서의 Alcohol 濫用과 依存이 24.5%라 報告하였고, 유⁶⁾는 飲酒는 不安 및 憂鬱性向을 나타내는 症狀중에서 心理的 側面의 症狀보다는 身體 生理的 側面의 症狀 특히 胃腸과 泌尿生殖系 不安性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林⁸⁾과 신⁵⁾ 등은 入院한 알콜성 精神障礙者에 對한 臨床的 考察을 하였다.

多面的人性檢査에 의한 研究報告는 피¹¹⁾는 Alcoholism 患者와 社交性 飲酒者를 比較하였고, 조⁹⁾는 Alcoholism 患者, 習慣性 飲酒者, 社交性 飲酒者로 나누어 각각을 比較하였고, 박³⁾은 Alcoholism 患者와 正常人을 比較하였다. 本 研究에서는 알콜 濫用이나 알콜 依存이 없는 大學生群을 飲酒者와 非飲酒者로 나누워 比較하였다.

精神障礙의 分類와 診斷便覽(DSM-III-R)에서는 藥物依存範疇에 넣어 알콜 濫用과 알콜 依存으로 區分하고 있으며, 알콜 濫用이란 적어도 1개월 혹은 그 以上の 持續的인 혹은 삼화적인 飲酒狀態로써 社會的 혹은 職業的 技能의 損傷을 包含하는 社會的 合併症, 心理的 依存 또는 病的인 사용이 있는 경우로 定義하고, 알콜 依存이란 알콜 濫用に 附加해서 耐性이나 禁斷症狀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¹⁵⁾.

本研究의 目的은 大學生飲酒者들의 精神障礙 有無를 알아보기 위한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는 群이 술을 마시지 않는 群과 比較하여 多面的人性檢査에 어떠한 差異가 있으며, 또한 달의 變化에 따라 어떠한 變化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本研究結果를 살펴보면 妥當性 尺度인 L, F, K 尺度의 T點數가 모두 40 이상 60 이하로 비교적 높은 信賴度를 나타 내었다 (Table 2,3,4). 飲酒群과 非飲酒群의 比較에서 飲酒群이 尺度 L, K, Si를 제외한 모든 尺度에서 非飲酒群보다 T點數가 높았는데 (Table 2), 이러한 結果는 박³⁾의 研究에서 알콜 障礙 患者들이 正常人보다 L, K 尺度를 除外한 모든 尺度에서 높은 T點數를 보였고, 조⁹⁾의 研究에서 Alcoholism 飲酒者들이 社交的 飲酒者보다 尺度 L, K, Mf, Si를 除外한 모든 尺度에서 높은 T點數를 보였으며, 또 피¹¹⁾의 研究에서는 Alcoholism 患者群이 社交的 飲酒群에 보다 尺度 K, Mf를 제외한 모든 尺度에서 T點數가 높았던 結果와 全般的으로 一致한다.

一般的으로 多面的人性檢査의 神經症診斷은 神經症 尺度 Hs, D, Hy 중 하나 以上の 尺度에서 T點數가 70점 이상 이면서 세 尺度中 60점 이하의 T點數가 없는 경우이고, 精神症 診斷은 精神症 尺度 Pa, Pt, Sc, Ma 중 2개 이상의 尺度에서 T點數가 70점이 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基準으로 飲酒群과 非飲酒群의 神經症, 精神症 傾向을 살펴 보았다. 神經症傾向은 飲酒群은 150명중 18명으로 12%이며, 非飲酒群은 44명중 4명으로 9%가 該當되었다. 精神症傾向은 飲酒群은 150명중 9명으로 6%이며, 非

飲酒群은 44명중 1명으로 2%가 해당되었다. 飲酒群이 非飲酒群보다 神經症, 精神症傾向이 높았다. 이와같은 結果를 보면 酒精이 人性에 影響을 준다고 推測할 수 있다.

달의 週期에 따른 酒精攝取者들의 多面性人性檢査上的 變化를 보면 飲酒者나 非飲酒者 모두 보름날이 그믐날에 비해 各臨床尺度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Hs, Hy, Pt 尺度등의 上昇은 보름날이 그믐날에 비해 感情上的 不安, 緊張등이 甚함을 알수 있었다 (Table 3, 4). 飲酒群에 있어서 달의 週期變化에 따라 보름날이 그믐날에 비하여 尺度 Hy, Hs, Mf, Pt, Ma 등의 上昇을 볼수 있었다. (Table 5, Fig 4). 한편 Hy, Hs, Pt, Ma 尺度등은 모두 不安, 緊張등의 感情上 障礙를 나타내는바, 이는 飲酒群이 보름날에 특히 感情障礙가 增加하여 飲酒傾向을 나타낸다고 思料된다. 한편 非飲酒群에 있어서도 飲酒群의 類型과 같이 그믐에 비해 보름날에 MMPI 尺度上的 Hs, Hy, Pd, Pa, Pt, Sc, Ma, Si 등이 上昇하였다 (Table 6, Fig 5). 이또한 飲酒群과 같이 보름날에 飲酒가 아닌 기타방법으로 精神的인 stress를 解消하고 있는것으로 推測되어진다. 이러한 結果로 달의 變化가 人性에 어느정도 變化를 주고있다고 思料되어진다. 以上の 結果로 보면 飲酒가 人性에 影響을 주고 있음을 알수 있었으며 특히 그믐날에 비해 보름날에 飲酒傾向을 알수있었으니, 이같은 類型으로 인한 大學生 飲酒者들의 反復된 飲酒는 習慣性 飲酒로 인한 情緒障礙등의 各種 精神疾患의 誘發要因이 될수 있음으로 思料되어진다.

本 研究의 目的은 飲酒者의 人性特性과 달의 週期에 따른 MMPI 上的 變化를 알아

보기 위한 것인데 制限된 調查對象과 한가지 檢査만으로 一般化 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本 研究結果를 土臺로 보다 많은 對象으로한 研究가 必要하다고 思料된다.

V. 結 論

酒精攝取者의 人格特性과 달의 週期에 따른 MMPI 上的 變化를 알아보기 위하여 1992년 4월 2일(陰曆 2월 30일)과 1992년 6월 15일(陰曆 5월 15일)에 圓光大學校 韓醫學科에 在學中인 본 3學生을 對象으로 多面의 人性檢査를 反復 施行하였다. 이들에게 MMPI를 實施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었다.

- 1) 飲酒群과 非飲酒群의 各尺度別 T點數의 平均값은 모두 正常範圍안에 있었다.
- 2) 飲酒群이 L, K, Si 尺度를 제외한 모든 尺度에서 非飲酒群보다 높은 T點數를 보였으며, 尺度 L ($P < 0.05$), F ($P < 0.01$), Pd ($P < 0.001$), Pa ($p < 0.05$), Sc ($P < 0.01$), Ma ($P < 0.01$)에서 有意한 差異를 보였다.
- 3) 보름날에는 飲酒群이 尺度 L, K, Si를 제외한 모든 尺度에서 非飲酒群보다 높은 T點數를 보였으며, Ma 尺度에서만 有意한 差異를 보였다 ($P < 0.05$).
- 4) 그믐날에는 飲酒群이 尺度 L, K, Mf, Si를 제외한 모든 尺度에서 非飲酒群보다 높은 T點數를 보였으며, L ($P < 0.01$), F ($P < 0.01$), Pd ($p < 0.001$), Sc ($p < 0.01$), Ma ($P < 0.05$)에서 有意한 差異를 보였다.
- 5) 飲酒群은 그믐날에 비해 보름날이 尺度 Hy, Hs, Mf, Pt 등에서 높은 T點數를 보였다.

6) 飲酒群이 非飲酒群보다 神經症, 精神症傾向이 높았다.

以上的 結果로 보면 보름날의 飲酒가 人性에 影響을 주므로 大學生 飲酒者들의 反復된 飲酒는 習慣性 飲酒나 Alcoholism 障礙로 變化될 憂慮가 있으므로 節酒가 必要하다고 思料된다.

參 考 文 獻

1. 김광호, 신정호, 이만홍: 일부대학생 집단에서의 주정중독, 담배의존, 병적과 식욕증 및 병적도박의 유병율과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7(6) pp.1042-1053, 1988.
- 2.金星勳:人性變化와 腰痛의 相關係에 관한 臨床的 考察(MMPI를 중심으로),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1), pp.82-93, 1991.
3. 박중호, 박민철, 박남진:입원한 알콜성 정신장애 환자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8(1), pp.88-95, 1989.
- 4.徐銀美:커피와 MMPI와의 關聯性,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1), pp.94-107 1991.
- 5.신수철, 정한용, 한선호:신경정신과에 입원한 Alcoholism 환자에 대한 임상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29(6), pp.1372-1379, 1990.
- 6.유영식, 나철, 이길홍:정신과 입원환자의 음주와 불안 및 우울성향과의 상관관계분석, 중앙의대지, 15(1), pp.97-113, 1990.
- 7.尹祥熙:手指末端體溫과 人性檢査와의 相關性에 關한 研究,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3(1), pp.46-55, 1992.
- 8.宋鷺氷:中醫病因病機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239, 1987.
- 9.조성남, 이대희:Alcoholism 환자의 인격 특성에 관한 연구(MMPI를 중심으로), 신경정신의학, 23(4), pp.452-461, 1984.
- 10.曹皓哲, 金政輝, 李時炯:韓國人の 飲酒樣態에 關한 研究, 神經精神醫學, 14(1), pp.1-12, 1975.
- 11.피상순, 노승호, 오상우:입원된 Alcoholism 환자의 정신병리 - MMPI, SCL-90, HPRS를 중심으로 -, 신경정신의학, 29(3), pp.649-659, 1990.
- 12.刑完龍:虛證이 簡易精神診斷檢査에 (SCL-90-R)에 미치는 影響, 동의신경과학회지, 2(1), pp.108-121, 1991.
- 13.金重述:다면적인성검사 - MMPI의 臨床的 解釋 -,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1.
- 14.柳熙英:東醫精神科學, 서울, 慶苑文化社, pp.100-107, 1983.
- 15.이근후:DSM-III-R(정신장애의 분류와 진단편람), 서울, 하나의학사, pp.109-111, 1989.
- 16.이근후, 우행원, 박영숙:최신임상정신의학, 서울, 하나의학사, pp.574-576, 1988.
- 17.李定均:精神醫學 개정판, 서울, 一潮閣, pp.388-409, 1992.
- 18.정범모, 이정균, 진위교:MMPI 다면적인성검사 검사법요강, 서울, 서울코리아 테스트엔타, 1967.
- 19.鄭遇悅:韓方病理學, 전주, 三進社, pp.34-36, 170, 1988.

20. 許浚：東醫寶鑑，서울，南山堂，p.431, 1976.
21. 黃義完，金知赫：東醫精神醫學，서울，現代醫學書籍社，pp.440-441, 1989.
22. 謝觀：東洋醫學大辭典，서울，高文社，p.584, 1975.
23. 任應秋：黃帝內經章句索引，北京，人民衛生出版社，pp.83, 126, 327, 362 404, 1986.
24. 橋瓜 圭可，古家 仁，奥田 孝雄：人格テスト(MMPI)で女性型の性格偏位傾向を示す男性慢性疼痛患者に對する加味逍遙散 コキス 顆粒劑の效果，日本東洋醫學雜誌，43(1)，pp.55-60, 1992.
25. Lieber, a. 1: Moon, myth and mental illness: A reaserch proposal, resented to reserch coordinating comittee, university of Miami school of medicine, miami, Fla., June, 1970
26. Kelley, D.M: Mania and the Moon, Psychoanal., rev., 29:406-426, 1942.

ABSTRACT

In this study the author had attempted to establish a correlation among alcohol use and MMPI and lunar cycle. MMPI was carried on 2, April 1992(the last day of the second lunar month) and 15, June 1992(the fifteenth day of the fifth lunar month). These experiments took male and female students who were in WON KWANG University as subjects. The results of it suggested the followings.

1) Drinkers and normal subjects average of T-score in each scales were in a normal scores.

2) In every scales except L,K,Si scales drinkers showed higher scores than normal subject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n L, F, Pd, Pa, Sc, Ma scales.

3) On the fifteenth day of the month, drinkers showed Higher T-Scores than normal subjects in every scales except L,K,Si scale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Ma scale.

4) On the last day of the month, drinkers showed higher T-scores than normal subjects in every scales except L,K,Mf,Si scale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n L, F, Pd, Sc, Ma scales.

5) Drinkers showed higher than normal subjects in symptom of neurosis and psychosis.

As the results of above, human character changes to some extend according to alcohol use.

There is a tendency that repeated drinking of college students prone to change into habitual drinking or alcoholic impairment. So controlled drinking among the college students is highly recommended.